

## 원장스님 종무식 말씀

불기 2553년, 서기 2009년 마지막 날  
입니다.

종무원 여러분 ! 올 한 해 노고가 많  
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종단이 나날  
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 새해 벽두에 용산참사  
가 있었고,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  
던 노무현 전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  
거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과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이 세상을 떠셨  
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던 지도자들이 이렇듯 한 해에 가신 것도 드문 일입니다.

이제 한 시대가 가고 새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종단은 전임 원장스님들의 원력불사였던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과 템플스테이센터를 개원했습니다. 조계사 사리탑 조성 불사도 원만히 회향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규모의 합창단 조직도 만들었고, 박물관에서는 백제불교문화전, 석굴암 사진 100년 전 같은 좋은 전시도 마련했습니다.

대정부 관계에서도 성과가 컸습니다. 환경부의 일방적인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을 막아내고 국립공원 문제를 종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종단 사상 처음으로 전국 본말사 주지스님 1천500여명이 1박2일 동안 연수를 하고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문화재보호기금법도 제정되어 앞으로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원도 보람있는 일이 있었습니

다. 종단의 소의경전인 금강경 편찬 불사가 10만부를 돌파했고, 불학연구소는 인세만 6천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니, 부처님 법도 널리 전하고 돈도 버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박수)

포교원도 종단 사상 처음으로 포교 결집대회를 개최하였고, 신도등록사업을 강화하여 상당한 성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신도등록사업은 종단의 미래를 밝혀 나갈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수 종무에 선정된 사업에 대  
해서는 소정의 포상을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포상금을 대폭 높였습니  
다.

더 나아가, 금년도에 우리 종단은  
무엇보다 의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월 22일, 제33대 총  
무원장 선거였습니다.

제33대 총무원은 종도들로부터 화합  
을 통하여 종단을 중흥하라는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종단은 제33대 총무원 출

범을 계기로 소통과 화합으로 한국불교를 중흥하는 새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대도 큼니다.

오늘 종무식을 끝으로 연말 휴가에 들어갑니다. 푹 쉬면서 새해 서원과 구상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노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불기2553년 12월31일 총무원장 자 승